불황속에 더 빛난 조선대병원의 약진

조선대병원이 극심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 증가는 물론 장애인 재활센터, 응급질환 센터로 선정되는 등 특성화된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조선대병원의 성과는 '환자수의 증가'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암 센터 개원을 비롯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전 직원이 매진한 결과, 지난 2월에 PET-CT 5천례를 돌파하는 등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외래 환자는 지난 2007년 32만466명에서 2008년에는 33만6천484명으로 전년대비 1만6천

작년 외래·입원환자 5% 이상 증가

최근 장애인 재활 센터 등 잇단 선정

18명이 증가(5.0%)했고, 입원환자는 20만416명에서 21만3천793명으로 1만3천377명(6.7%)이 늘었다.

이와 함께 조선대병원은 최근 '광주장애인 재활 전문병원 운영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조선대병원은 광주시의 광주장애인재활전문병원(북구 본촌동 옛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수탁기관 공모에서 사업자로 뽑혔다.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해 150병상 규모로 건립하는 광주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2011년 문을 열면 호남권 거주 장애인 28만여명에게 장애별 특성과 생애주기에 적절한 진단,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조선대병원이 중증응급질환(뇌질환, 심장질환) 2개 분야 전문센터로 추가 지정된 것도 특성화된 전문병원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중증응급질환 전문 특성화 후보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아 24시간 심장내과 등 응급 관련과 전문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응급재관류요법, 응급수술 등 최종 치료를 받지 못해 중증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던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병원 특성화 후보 센터가 실제 가동되면서 119구급대 등 이송체계와 연계될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시간과 진료시간이 현재보다 현저히 단축됨으로써 사망률과 장애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남수 조선대병원장은 "선진 의료와 환자 중심의 인술을 펼치기 위해 의료진들은 환자 진료와 고객만족 서비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병원의 자구 노력 등이 더해지면서 환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조선대병원이 불황속에서도 잘 나가는 3차병원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병원이 원스톱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암센터와 수술실, 중환자실, 심혈관센터 등 핵심 진료시설을 집적한 신관(지하 3층, 지상 4층) 내부 전경. 〈조선대병원 제공〉

光州日報·전남대병원 공동 주최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 강좌 ——— "가슴이 아파요!"…흉통에 대하여

앞가슴 가운데 부위 통증땐 식도 이상

최근 외래 및 응급실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흉통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된다. 크게는 심혈관질환 (심장질환, 대동맥질환, 폐혈관질환)과 비심혈관질환으로 나누며, 우선 이 두 원인질환을 감별하는 것이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 가슴속에는 다양한 장기가 있다. 가슴속에 있는 장기로는 심장 및 대동맥, 폐 및 기관지, 식도, 그리고 이러한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와 흉곽 근육이 있다. 따라서 이들 장기 중 어느 한곳에 이상이 있으면 흉통이 발생할 수 있다.

전남대병원 강당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시민건강 강좌'에서 안영근 순환기내과 교수가 가슴 통증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전남대병원 제공〉

운동·흥분때 심해지면 협심증 가능성

정확한 원인 찾아 적절한 치료 받아야

전형적인 관상동맥(심장근육으로 피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혀 생기는 협심증에 의한 흉통은 운동시, 그리고 정신적 흥분이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안정시에는 통증이 사라진다. 통증 지속시간은 2분에서 5분 사이이다. 통증 부위의 크기가 손가락으로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부위인 경우는 이러한 협심증일 가능성이 낮다. 만일 이러한 통증이 30분이상 지속되고 땀을 계속 흘리고, 저혈압 등이 동반되면 심근경색증(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근육이 썩는 질환)일 수 있으므로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좋다.

이러한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흉통은 다음과 같은 진단방법이 있다.

▲**심전도** : 심장의 전기신호를 몸밖에서 체크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흉통이 나타날 때 측정해야 하고 협심증의 경우에 상당수에서 정상소견을 보일 수 있다.

▲**운동부하 심전도** : 환자가 운동하는 동안의 심전도를 기록해 협심증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환자의 운동능력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환자가 관절염 등으로 인해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혈액 검사** : 심근경색증 등으로 인해 심장세포가 괴사되면 손상된 심장세포 내부에 있던 효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 나와 혈액 속의 농도가 상승된다.

▲**흉부 방사선 사진** : 심장의 크기와 모양, 주요 혈관의 상태 등을 알 수 있으며 의사들이 다른 여러 질환을 배제 하는 데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심근방사선동위원소검사** : 심장근육에 특별히 잘 모이는 물질에 방사선동위원소를 부착, 혈관을 통해 주입해 이 방사선동위원소가 심장근육에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통해서 협심증을 진단하는 검사이다. 이 밖에 전산화 단층촬영(CT)과 관상동맥조영술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심장 관련이 아니더라도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많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 식도경련, 식도파열 등의 질환도 흉통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식도이상에 의한 통증은 앞가슴 중앙이 화끈거리는 통증으로 아스피린 등의 항염제 복용이나 음주 시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고 제산제 복용시나 물을 마실 때 완화된다.

늑막의 이상으로 가슴이 아픈 경우 늑막염이나 기흉(가슴에 공기가 차는 질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늑막염은 대개 옆구리나 아래쪽 흉곽에 통증이 있고 기침이나 하품을 할 때 그리고 심호흡시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원인에 따라서는 손으로 갈비뼈 사이를 누르면 통증이 커지기도 한다. 기흉은 흡연을 하는 젊은 남자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을 갖는 사람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많은 흉통 환자들이 심한 자각증상이나 증후로 인해서 곧 응급실을 방문하지만 경미한 질환이거나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도 많고, 심하지 않은 자각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당장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흉통환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빠른 시간 내에 그 원인을 찾아내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적십자사 봉사회 북구협의회 무등산 청소

건보 가족봉사단 학동 행복요양원서 봉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봉사회 광주북구지구협의회는 7일 '새봄맞이 무등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에는 광주북구지구협의회 봉사원 100여명과 북구청 직원들이 참여, 제4수원지 입구~분토마을(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겨울 동안 불법 투기 된 쓰레기와 폐기물 등을 수거했다.

최기영 광주전남지사 북구지구협의회장은 "봄을 맞아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를 보여주기 위해 무등산 주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강병권)는 최근 직원 가족들로 구성된 광주지역본부 가족봉사단(단장 김현주)과 함께 동구 학동에 위치한 행복요양원을 방문해 거동을 할 수 없는 지체중증장애인들에게 목욕과 마사지, 식사 먹이기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건보공단 광주지역본부 가족봉사단은 50여명의 직원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해 지난 해 2월 20일 광주권역, 서남권역, 동부권역, 전북권역 등 4곳에서 발대식을 갖고 사회복지시설과 양로원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김현주 단장은 "작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렇게 봉사할 수 있어 너무나 감사하다"며 "공단 가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병권 본부장은 "직원들도 매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직원 가족들까지 이렇게 발벗고 봉사활동을 펼쳐 너무나 흐뭇하다"고 말했다.

최영자씨 간호지도자상 수상

전남대학교병원 최영자〈사진〉 간호부장이 최근 열린 제34회 병원간호사회 정기총회에서 간호지도자상을 수상했다.

최영자 간호부장은 2004년부터 2008년 4월까지 광주시 병원간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탁월한 리더십으로 간호사들의 권익과 재취업, 지식발전 등 간호사의 역량강화와 화합에 크게 기여해 왔다. 또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배분분과위원 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공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